



잘사는 전북우리가 희망!

유네스코 고창

자연보존-인재육성 더불어 사는 삶 실현

고창군 유네스코 지정

따뜻함과 정겨움으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등록된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올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고창군은 자연생태 자원이 잘 보존된 운곡습지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며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생태체험-에코촌 조성계획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고인돌 유적지 정비-관리 브랜드 활용 경제활성화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는 생태
관광 활성화

청정하고 정감 있는 세계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고 자연생태 자원이 잘 보존된 윤곡습지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된 아산면 용계마을과 주변마을에 생태습지복원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힐링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아산면 윤곡저수지 일원에는 탐방로와 습지관찰장과 체험장, 전망대가 조성되고 용계마을과 주변 마을은 생태마을로 생태체험과 관찰시설뿐만 아니라 친환경 숙박시설이 갖추진 에코촌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고창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동립저수지 일원에 국가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 생태탐방둘레길과 조류관찰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한 전북도가 도내에서 지질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추진해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지역 경



“

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며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 선운산도립공원과 고창갯벌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과 세계유산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도모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람사르’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람사

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 인증을 통한 고창의 이미지 상승과 지역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군은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국제적 자연환경 생태도시로서의 고창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고창의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문화다양성을 교육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한다.

▲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현명하게 이용해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산업과 브랜드 활용 인증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유네스코의 인지도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유기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가공체험관광 등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